

“지난 5년간 7배 성장한 드론시장, 핵심산업으로”

‘전북 드론산업 육성 토론회’ 서 제기돼

국내 드론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약 7배 성장했지만, 전북도에는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업과 활용방안이 없어 드론을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드론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주 의원은 “지난 2016년 704억원에서 2021년 4천7백억

원 이상으로 7배 성장한 국내 드론시장 성장세에 정부도 2028년까지 드론 제작분야에 4조 2천억 원, 활용분야에 16조 9천억 원 등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캠틱종합기술원의 이범수 부장은 전북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축구를 비롯한 드론컨텐츠산업과 에너지 자립형 버티포트, 전복형 드론관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장은 “국내 드론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드론

활용시장은 제작시장의 4배로 예상된다”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관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스포츠 마케팅과 산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전)전북스포츠과학센터장 문동안 박사는 “스포츠산업의 형태가 장비위주에서 자발적으로 즐기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즐거움을 위한 웰리스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하고 드론의 스포츠산업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선 2명의 발제자 외에 박용근 도의원, 최경렬 전북경찰청 팀장 매드벤처의 손이경 대표, 송금현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회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국내 드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후발 주자에 속하지만, 드론 기술확보를 위한 IT기반 기술력과 기후환경을 갖고 있고 특히, 전북은 드론 테스트베드 전현의 조건을 두루 갖춰 미래 성장 가능성에는 토론회 참석자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자체 중 전북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없을 정도로 드론육성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전북경찰청 드론수색대의 협조를 얻어 드론 시연행사를 가졌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드론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전북도의회,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일상서 성차별 등 예방 피해자에 공감해줘야”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매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채 소장은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의 관행과 인식 및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일상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조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해

주며 상황에 제동을 걸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며 “가정폭력을 묵인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사회문화 조성,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예방 조기발견 및 개입 등 우리의 관심이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지용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사회에서의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으로 의원은 물론 사무처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이는 소유물 아냐...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문 대통령, 아동학대 예방의 날 SNS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지난 19일 “사람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도, 합부로 할 수도 없다”며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고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3월부터 확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김용호 변호사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전북도와 도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2022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희망있는 전북 만들 것”

국힘 김용호 임순남 당협위원장, 도지사 출마 선언

“전북 정치를 바꾸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김용호 변호사(44)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전북도와 도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2022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용호 위원장은 “혈연 지연 학연 등 ‘백’이 없어도 인사와 예산 정책에서 어느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전북이 아닌 고향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쉽게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젊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희망의 전북을 만들겠다”면서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혁파해서 기업 경영인들이 지역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영하기 편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완벽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기회가 없어서 전북도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전북도민의 편에 서서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호 위원장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남원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남원·임실·순창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승욱 국민의힘 청년수석부위원장이 전주시의원, 김지현 청년위원회 대변인이 남원시의원, 한상욱 청년위원회 위원이 완주군의원 출마를 함께 선언했다

/유호상 기자

국토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환영

성경찬 도의원 “지역발전 견인기대, 신속 추진 역할”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고창군 관련 노을대교 건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농업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대장정길 조성, 문화유적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이 포함됐

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사업(총사업비 190억 원)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사업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은 “국가계획에 7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고창군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고창해리농협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